

제 213 호

대림 제 4 주일(C해)

1976. 12. 19.

#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 「回心」

이 수 현 신부

다시 대림절, 철이 나서부터는 대림의 뜻을 배우게 되었고 또 터득하려고 애도써왔다. 그리고 그 길은 의심의 미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것도 수차례다. 사람은 결심을 세법 잘한다. 허나 못 이루는 결심이 많다. 아마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스스로 감동해서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결심이기 때문일게다. 사람이 어떤 전체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보조를 맞춘다는것은 중요한 일이다. 분위기는 좋게는 좋지않게든 개인의 사고 방식과 처지까지를 바꿔 놓을수도 있다.

대림절! 이는 셋별이다. 희망과 기쁨의 진진적 셋별이다. 셋별은 새날이 밝기전에 나타나 빛난다. 대림절은 또한 반성과 정리, 그리고 결산의 때다. 「나」를 총정리하여 다각도로 심사분석하며 종합평가함으로써 마무리짓는 시기다. 따라서 이때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는 과거를 통한 나의 모든것이 종합된 현재에 서있다. 그러면 나에게 비춰진 나의 현재는 무엇인가? 나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예들어 교만, 이기심 혹은 욕심 바로 그것이 라고 규정지어진다면 매우 서늘프고 한심하며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순수해지고, 해맑고 따사로움이 깃드는 자신의 열매가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일그러지고, 탁하고 냉냉하게 굳은 열매, 옛모습 그대로 번쳐가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선택된 내 선발된 사람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혹은 그이상으로 말이다. 그런데 나는 의외인 만큼이나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한 생활을 하는가? 남을 도와주고 아끼는가? 양심이 바른가? 소위 의덕을 실천하는가? 라고 자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이 될까? 까놓고 말해서, 자신을 속여 은폐시켜 지금껏 목에다 휘주어 가며 지내왔지만 이것은 확실히 지피박을 더듬거리며 식은 땀 흘리며 건너온 느낌이다. 남이 이런것을 안다면 즉각 모든 존경심을 철회하고 여태껏 속았던것을 분개할게고 유하며 조소를 금지않을게다.

이런 사실을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되어 혼자 슬퍼 눈물지만 그리스도는 벌써부터 다 알고 계셨음을 왜 모르나? 이러 나를 그대로 놓고서 바로 이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다. 언제가는 스스로 부끄러워 할때가 있기를 바라시면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느새 용기가 조금은 나는듯하다. 그리고 막달레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도 떠오른다. "당신을 단죄하지 않겠소. 다시는 죄지지마시오" 이말씀에 나는 희망을 걸고 용기를 찾게된다. 나는 생동하기 시작하고 새 생명으로 치달게된다. 자신을 성정한 것으로 꼭 배우고 싶어진다.

대림절은 이를 위해서 설정되었을 것이고 또 나를 이를 위해서 대림절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림절은 고맙고 값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름다운 나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꾸려나가도록은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육군 제3사관 학교)



## 도둑의 눈물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한다."-지난 주일 어느 T V 수사 실화극 마지막 대목에서 시청자에게 호소한 결론이다.

내일 모레 철거해야 할 판잣집, 코흘리개 어린것까지 모아놓고(배도둑)이 되자고 울부짖는 아버지, 내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지라고 외치며 수갑차는 무능력한 남편, 호화주택과 판잣집,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때라서 더욱 쓸쓸스럽게 느껴지는 이방의 정경들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함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선물을 사들고 인사하는 어린 소녀, 불쌍한 피의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형사의 푸근한 몸짓에서 우리는 위안을 느낀다.

성탄절이 한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첫부서진 몸으로 이땅에서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성탄절의 뜻을 다른데서 찾느라고 방황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모습을 입고 이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탓으로, 또는 우리를 짓누르고 갈갈이 찢어대는 구조악 앞에서 무참악 짓밟혀 신음하고 죽어간다. 그런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며 살아간다.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 앞에 당신은 무엇을 선물하겠는가?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본래의 나.

-고통중에 짓뭉쳐진 형제들의 상처를 보살피며 인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나. (그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모두 한 하느님의 형제들이기에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값진 선물들임에 틀림없다.

## 숲 정 이 산책



축! 새일군 10명 탄생



# 3.1사건 항소 공판 방청기 (5.6)

김 영 신 신부

1주일에 2회씩 재판하는 예비통보가 올리면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은 증인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논고와 판결에 임하는 것이 1심 2심의 공통적이다. 과연 한국적 민주주의의 법정 운영일까?

박세경 변호인 대표는 자꾸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기각, 거절하기 때문에 1심처럼 재판 기피 신청을 하고자 했지만 이 사건의 세계성과 역사성을 감안할 때 의무감을 느껴 재판에 임하기로 했으며 보충신문을 했다. 12월 11일과 13일에 걸친 보충신문 끝에 검찰의 논고가 있었다. (이하 두차례에 걸친 보충신문의 종합 내용이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판결내용을 듣고 공소사실과 판결내용이 거의 같았음을 알았다. 보충신문을 받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한결 같았다. 일정부족이 일방적으로 논리적 비약을 시키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 구체적 증거 없이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공소장과 판결문은 남이 써준 것과 같다. 기소 당시부터 이미 판결이 결정된 느낌을 갖게끔 증인과 피고인들이 진실을 말해도 전혀 참작치 않았다. 사실을 밝혀주지 않고 "사실왜곡"을 하여 정부전복을 위한 "민중봉기"를 했다고 일방적인 판결을 했다.

국가의 통일을 염원하는 동기와 목적에서 민주주의 실현(정치, 외교, 농상공, 학원, 언론, 종교 등의 문제), 경제입국면의 민족자본, 삼권분립 보장, 통일에 대한 제시를 했으나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대화도 증거도 필요없는 양 「3·1 명동사건(구국선언문)」, 「원주 기도회사건(천주교 일치주간 행사)」, 「경과보고(정의구현 사제단)」, 「양심선언(김지하 시인 옥중 호소)」, 「김지하 어머니 호소문(전주 월요기도회, 명동사건)」낭독과 내용을 본문과 달리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사실 왜곡"을 하여 정부전복을 위한 민중봉기를 일으켰다고 조작했다.

왜 이 사실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가? 모든 신문들이 제목까지 같게 문공부 발표만을 보도케 해 놓고도 신문사 수가 매년 증가되고 해마다 T.V가 증가되니 -언론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니 과연 언론자유가 있는가? 정부통제만을 제시하고 교회의 수와 신도의 수가 늘어난 숫자를 제시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과연 옳은 논법인가?

이런 정도의 제시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 양심,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헛발칙으로 너무나 부족하다. 법적 근거로 인간 기본권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보시킨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기소한 사실은 얼마나 모순되는가? 그러면서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니 민주주의란 명목을 지닌 이상 자기 폐일에 자기 스스로 빠지는 격이다.

대중 앞에 나타난 사실을 사실대로 비판하는 것은 전 문적 학설도 아니고 이상도 아닌 현상이다. 국민이 애국 애족 하는 마음에서 알것을 알게하고 말할것을 말할 때

국가안보는 튼튼하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 기본권을 박탈하는 정권은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하는 것이다. 독일이 국민의 자유와 양심을 꺾박했기 때문에 망했고 월남과 크메르도 그러하다. 우리도 독일과 일본(명치유신)을 닮는 것인가? 관사가 붙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헌법학자들은 말한다. 때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민주주의도 아니다.

통일안보(자조안보) 아닌 정권안보는 권력형 부패만 심하게 한다. 와우아파트 사건, 남영호 사건, 부정매출, 테러, 원인 불분명한 살인 사건, 동아일보 사건, 느사 분규, 성직자 구속, 학원사태, 민주인사 구속, 학생 구속,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상실, 질프 석유회사 사건, 록히드 사건, 박동선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김모씨등의 미국 보호요청 등 사건을 볼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국법에 양심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국가인양 혼동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히려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하느님이 주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국가사회의 질서를 유지토록 봉사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나쁘면 시정을 요구하는 대화를 권한다. 그 뿐 아니라 1차적으로 지식인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공동선을 위하여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싸워야 할 사명이 있다. 계산능력 없고 존재(명예)없는 신부, 목사,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찌 정치참여라 할 것인가? 이 사실은 일부일지라도 의미가 있으며 마땅히 대화가 되어야 한다.

공산당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교회 밖에선 못하게 하는 식의 정치도구는 없어져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다 하여 진정한 인간 회복, 정의구현이 되는 통일안보가 이 조국에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교구 관리국장>

## 한국 (流)온수온돌 연탄 보일러

★ 꼭 찾아주세요.

※ 연탄 가스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젠 열려 없어요.

한국 온수 연탄보일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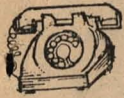
연탄가스에서 해방시켜 드리니까요.

연락처 : 전주시 중앙성당 상가

전 화 : ③ 4 8 7 4, ② 2 6 2 8

법 창 규(베드루)

□ 긴급동의 □



# 청년회 - 교구 연합회

고운석 (요한)

76년도가 이제 다 가려고 합니다. 이 해가 다가기전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어느 성당이나 전설처럼 내려오는 청년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모임은 주님의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고 있습니다만 성당내의 일면에서 보자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을 해놓고도 흔적이 남지않는 것이 바로 청년회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청년회 자체에도 어려운 난관이 아주 많습니다. 태중 큰 어려움은 첫째, 회의를 갖는데 회원들의 모임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양과질이 같아야 하는데.....물론 시간적인 것이 이유가 될수도 있겠지요.

둘째, 1년 동안에 성당안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은데 이 행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지도와 많은 회원들의 종합의견이 필요한데 비해 불과 몇몇 회원에 의해 이루어지는일이 많습니다.

셋째,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주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배우고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각 본당에는 많은 회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회들은 전주교구를 중심으로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어 필요한 일과를 지도하고 알려주며 때론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며 더 좋은 주님의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청년회만은 연합회가 없이 각 본당 자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토의 할 연합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각 본당과 본당끼리 서로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각 본당의 젊은이들이여! 우리 좀더 희생과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업에 힘써 봅시다.

<정읍천주교회 청년회장>

## 요십이 (177) 김병오

10명의 새사제가 서품되었구나



내년에는 8명의 새신부가 또 서품되는데..



교황님 할말있요!



전주교구를 사제양성 모범교구로 표창해주쇼!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성 (축) 탄

임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 (야고버)

□ 상식 □

### 크리스마스(Christmas)와 미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사실 이 말은 본래 영어의 「그리스도의 미사」 (Christ Mass)라는 말에서 유래된 용어다. 그리고 X-mas 라고 쓸 경우는 영어의 X자를 딴 「엑스마스」가 아니고 그리스 (회랍)어의 그리스도 (Xpcstos)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것이니 꼭 「크리스마스」라고 읽도록 주의 할 것이다.

성탄이란 말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도 (예: 羅-나탈리스, 伊-나탈레, 佛-노엘 獨-바이나하벤) 이렇게 주로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는 것은 그만큼 「성탄 밤 미사」가 장엄하고 성대했음을 감명깊게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미사」야말로 최상의 제사. 더없이 보배로운 사랑의 향연이니까.

아무튼 성탄절을 맞아 우린 무엇보다도 이 감사롭고도 은혜로운 제사, 미사참례로 더욱 이 날을 크게 기리고 경축하는 참 크리스찬(信者) 되도록 마음 굳게 해야겠다.

<김봉희 신부>

※ 인사 말씀 ※

### 가톨릭 센타가

교형 자매들의 집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고자 새로이  
식당과 다방을 열었습니다.  
더욱 아껴 주십시오.

관장 범 석 규 신부

#### ■ 대관

강 당 1실 (200석)  
회의실 1실 (80석)  
소회의실 4실 (각 25석)  
※ 교회 단체에 50% 할인

#### ■ 식당 (가톨릭 회관) 250석

매일 여러분을 모십니다.  
로스쿠이, 대중 식사 전문  
※결혼 피로연 환영  
※아늑한 방도 4실

#### ■ 다방 60석

(전화) 사무실 식당  
3-3498  
다방 3-7127



1. 부제반 인사 배정

김순태-고산, 김준호-장계, 유종환-무주, 범영배-창인동(관봉), 정태현-부안, 장덕수-금산  
김윤태-수류, 이순성-남원, 조정오-삼례, 현유복-서학동, 김창수-북자

2. 꾸르실로 개최 (가톨릭 센터. 신청 마감-76년 12월 31일)

■ 남성 10차.....77년 1월 18~21일 ■ 여성 3차.....77년 1월 25~28일

□ 연락처.....전주 성심여고 내 꾸르실로 사무국 ※ 수강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을것

3. 꾸르실로 사무국 임원 개편, 사무국 이전 (전주시 교동 성심 여고, 전화 2-5037)

주간: 친 전, 총무부장: 이덕우, 재무부장: 유기동, 교수부장: 이관형, 신심부장: 박종용,

섭외부장: 김성록, 음악부장: 조지영

※ 이 회창 (바오로, 해성교 교사) 씨 나환자촌 공소에 성금 10,000원 기탁

□ 신설 본당 용안 성당에 도움주실 독지가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연락처: 숲정이 편집실 또는 용안 성당)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성  
사도 회장 이상용

1.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영세식: 12월 23일 (목) 오후 6시
  3. 성탄미사 안내: 24일 (자시미사-주교님집전), 25일 (오전 8시반, 10시, 오후 7시)
  4. ※주일학교 방학 및 졸업식: 24일 (어린이 성탄 전야 행사) ※예비신자 요리반 방학: 12월 19일
  5. 판공성사 안내: 성사시간 <9시반~12시, 오후 2시~7시>, ① 20일-전북 1동, 인후동, 금암동, ② 21일~서노 1구, 서노 2구, 중노총동, ③ 22일-경원동 교사동, 태평 1~1구 ④ 23일-태평 1~2구, 태평 2구, 공소 ⑤ 학생 (20일~23일)
- ◎ 하루씩이니 까요. 해당 판공일에 꼭보세요.  
◎ 판공일에 해당 구역장님은 꼭 참석하세요.

(노총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판공 일정: 20일-남노총동, 인후동, 21일-중노 1구, 22일-중노 2구, 23일-기타 누락자(시간: 오전 9시반~11시, 오후 2시반~5시반, 7시반~8시반)
2. 성세성사: ① 2단계 받아실 분 면접<오늘저녁 8시부터>, ② 예비자 특별지도-21일, 22일, 저녁 8시 ③ 영세식-24일 오후 2시반<2시까지 대부분은 나오십시오>
3. 아동교리: 20일~2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2시반 ※교리시간(미사포함)하고 슬라이드를 상영. 어린이들을 꼭 보내주세요. ※시상식: 25일 오후 2시 미사후
4. 성탄 전야제: 24일 저녁 8시~11시반.
5. 성탄 축일 미사안내: 자정미사-24일 자정. 대미사-25일, 오전 10시, 아동미사-25일 오후 2시, 왕정리 공소에서 4개공소 신자들 위한 특별미사-오후 3시, 7시.
6. 성모회, 성우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7. ★환영! 권용희(도미니코) 보좌 신부님. 20일(월) 도착. 저녁미사에 많은 참석바람.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어린이 세례식: 25일 저녁미사 후
  2. 전당리 공소 판공: 20일~22일.
  3. 신용조합 임원회: 20일(월) 12시
  4. 성탄 전야제 (24일 7시-빙고게임, 합창, 성가, 기악 등) ◎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금주 신축 현금: 이귀일(1,500원), 임순주, 김분례 문옥순(각 2,000원), 안옥동, 장명순(각 4,000원), 임득선, 임은순, 이순업(각 5,000원), 김금주, 박경애, 조윤식(각 10,000원), 임업분(15,000원), 이동신, 김성만, 김성배(각 20,000원)
- 주계 135,500원 누계 5,299,000원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중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탄절 행사: 24일 오후 8시~10시까지 ※푸짐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꼭 오십시오 (주최-학생회, 주일학교, 행운권판매-1매 100원)
2. 북자 성우회 정기총회: 24일 자정미사 후
3. 성탄미사: 24일-자정미사, 25일-오전 10시, 저녁 7시, 26일-오전 10시, 저녁 7시
4. ★축 결 혼★ 27일 오전 11시, 전동성당 임 병섭 군, 이 선이(테레사)양<본당에 미사없음>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부녀주일: 미사후 성모회(할머니회), 어머니회 월례회.
2. 축! 첫 미사-10시 미사 후 축하식.
3. 영세식: 24일 오후 3시
4. 판공일정(본당): 20일-1, 2, 3, 4, 5반 21일-6, 7, 8, 9, 10반, 22일-11, 12, 13, 기타반, 23일-직장인, 누락자. <성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 ※면접시 교무금, 판공비(150원), 도장공사 현금 봉헌바라며 주민등록 지참바람.
5. 성탄 및 본당 주보축일 행사: 24일 제 1부(주일학생 중고등학생, 밤 8시~10시), 25일 제 2부(다과회, 반 대항 노래 자랑(각반 3명출전)아침 01~3시)
6. 사랑의 선물 교환: 24일 밤 미사에 참여하는 분은 선물 1점씩 준비바람.
7. 신용조합 이사회: 오후 3시 ◎천원 참석바람.
8. 광곡 공소에서 서적을 기다립니다: 교회서적을 볼수 없는 공소 신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배웁시다. (연락처: 서학동 천주교 ②2276)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기호  
사도 회장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준

1. 성탄미사: 전야미사-8시(어린이), 10시(중고생), 0시(교중미사) ※성탄날 오전 10시미사~주교님 집전, 이날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2. 판공성사: 月-풍남, 노송, 火-동서원산동, 水-동서교동, 木-서학, 중앙동, 경원, 다가동, 기타.
3. 영세식: 23일-밤 7시<본당>, 낮 2시<교도소> ◎영세 개인 면접: 월요일 밤-젊은이, 학생, 화요일 밤-어른 전체.
4. 꼬미씨유희합: 오늘 오후 1시반.
5. 동 반 회의: 오늘 저녁미사 후